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핵심광물, 인니】 인니, 구리·철·아연 등 광물 수출세 최고 10% 부과
- 【핵심광물, EU】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핵심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목표 상향
- 【핵심광물, EU·칠레】 지속가능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 【반도체, 미국】 美 반도체산업협회(SIA), 미국 정부의 對中 제재에 공식 반대 입장 발표
- 【배터리, 호주】 호주, 전기차·배터리 산업 기지인 동남아에 6,700억 원 지원
- 【자동차, EU】 EU 집행위 자동차 순환경제 활성화 위한 '자동차 폐차 규정 개정안' 제안
- 【에너지, 독일】 독일, '32년까지 수소 운송망 확대 구축 계획 발표
- 【에너지, 호주】 호주 "청정에너지 기술, 중국 따라잡겠다" 도약 예고
- 【제재, 미국】 美 하원, 벤처기업들의 中 투자 조사... "투자자료 제출하라"
- 【협정, 러시아】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연장 중단 선언

○ 공급망 뉴스 더하기

中 전력난 재연 가능성과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 전망

○ 공급망 돋보기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의 지역적 편중 현황과 전망

○ 공급망 소식통

- ① 2023 한일 스마트팩토리 파트너링 사업 참가기업 모집
- ② 부·울·경 제조기업X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 안내

※ 제68호는 한주 휴간 후 8.10(목)에 발간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핵심광물, 인니] 인니, 구리·철·아연 등 광물 수출세 최고 10% 부과

- 7.19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23년부터 구리 정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 '24.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사들만 수출 가능하며, 공정률 50~70% 미만은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제 시설 건설 진행 상황에 기초해 관세를 결정
 - 철·아연·납 정광은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23년 말까지 2.5~7.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24.1월부터는 구리 정광은 7.5~15%, 철·아연·납 정광은 5~10% 범위로 관세 인상 예정
- 인니는 원자재 수출 시 부가가치 상승과 전방산업 육성을 위해 '23.6월 보크사이트·구리·철·아연·납 등의 광물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광산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제련소를 건설토록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3.6월부터 보크사이트의 수출이 금지됐으나, 구리·철·아연·납 등의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24.5월까지 수출금지 유예 조치 발표
 - 제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을 금지할 경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련소 건설 정도에 따른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고 10%의 관세율을 적용기로 한 것

출처: 서울경제(23.07.19), 연합뉴스(23.07.1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핵심광물, EU] 유럽의회 산업위, 핵심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목표 상향

- 7.18일(현지시간)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EU의 역내 광물 원자재 가공 목표를 40%→50%로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마쳤으며, 9.7일 위원회 표결 및 10.2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
 - * 유럽의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차 협상 개시
-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 (CRMA)* 제안, '30년까지 역내 수요 광물 원자재의 최소 10% 채굴, 40% 가공, 15%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
 - * '핵심원자재법 (CRMA)':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와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추진
- EU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역내 처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 최소 20%의 EU 역내 처리 역량 추가 확보 가능
- 신속 허가 절차 및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이른바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 및 사회적 기준 제시*
 - * 추가 기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관여 및 적극적인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 ▲채굴 후 폐광산 환경 상태 개선 등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3.07.20)

■ 【핵심광물, EU·칠레】 지속가능 핵심광물 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

- 7.18일(현지시간) EU-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공동체)에서 EU와 칠레는 양자 간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밸류 체인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에 서명
 - EU는 중국, 러시아 의존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과 거리를 두면서,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 450억 유로의 투자를 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을 대안으로 고려 중
- 양해각서에는 5가지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을 규정
 -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통합) 공동 개발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투자 활성화 및 무역 촉진 포함
 - (연구 및 혁신 협력) 광물 지식 고양과 환경 및 기후 영향의 최소화를 포함한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전반
 - (기준 정립 협력)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 (프로젝트 개발 협력) 하드 인프라 및 소프트 인프라 개발 관련
 - (기술 관련 협력)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교육,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협력
- 서명 후 EU와 칠레는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로드맵 개발 착수 예정, ▲EU는 '남미 및 캐리비안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3.07.19)

■ 【반도체, 미국】 美 반도체산업협회(SIA), 미국 정부의 對中 제재에 공식 반대 입장 발표

- 美 정부의 對中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가 전망되는 가운데, 美 반도체산업협회(SIA)는 7.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게시하고,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청 (원문 [클릭](#))
 - 美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성명을 통해 “美 행정부의 현재 및 잠재적인 수출제한 조치가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었는지,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동맹국과 완전한 조율이 가능한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협의할 때까지 추가 제한 조치 시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
 - 이어, “美 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일방적 제한을 가하는 반복적 조치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지속적 보복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전함
- 美 반도체산업협회(SIA)에는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인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이 회원사로 있어, 이들의 요구가 美 정부의 추가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출처: SIA(23.07.17) 등 KOTRA 언론보도 종합

■ [배터리, 호주] 호주, 전기차·배터리 산업 기지인 동남아에 6,700억 원 지원

- 7.13일(현지시간)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주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연합)에 '24년까지 총 5억 3,000만 달러(약 6,700억 원) 지원할 예정임을 발표
- 페니 워그 호주 외교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호주의 최우선 과제"라며, '동남아 경제 협력 장기 전략'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호주는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절반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나, 가공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전기차·배터리 산업 기지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와 협력할 유인 多
- 호주는 베트남에는 이미 진출하여 50만 달러(약 6억 원)를 지원한 바 있으며, 니켈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40년까지 전세계 배터리 생산국 5위 안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튬 확보가 필수이며, 두 나라가 기술·자본 협력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구축한다면 큰 파급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
 - 지난 5월 호주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함께 베트남의 '배터리 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생산 강화'를 위해 빈에너지솔루션에 50만 달러(약 6억 원)를 지원한 바 있음

출처: 중앙일보(23.07.1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자동차, EU] EU 집행위, 자동차 순환경제 활성화 위한 '자동차 폐차 규정' 개정안 제안

- 7.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폐차 과정에서 2차 원자재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자동차 폐차 규정' 개정안 제안
- 차량 수명 단계별 순환성 요건 강화를 위해 기존 EU 폐차(End of Life Vehicle, ELV) 지침(2000/53/EC)과 자동차 재활용성 형식승인 지침(2005/64/EC)을 폐지하고 규정*으로 일원화
 - * 지침은 회원국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하여 회원국별 입법 절차가 필요하나, 규정은 발효 시 역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적 구속력이 지침보다 강함
- 동 규정은 집행위 초안 단계로, 향후 의회 및 이사회 각각 논의 및 입장 채택 후 3자 협의 예정
- 차량 수명단계별(설계·생산·폐차) 순환성 요건을 강화하고, 생산자 책임 확대 및 규제범위 확대
 - (신차 설계 시) 제조사는 질량 기준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 최소 85%, 재사용 및 회수 95%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모터,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 제거가 용이하도록 설계 필요
 - (신차 생산 시) 재활용 원자재 사용 의무를 설정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25% 포함 의무가 있으며, 제조업체는 철강·알루미늄·마그네슘·희토류의 재활용 비율에 대해 관할 당국에 신고 필요
 - (폐차 시) 폐차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원자재 수거 목표를 수립하고, 폐차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30% 재활용 의무 부과
 - ▲폐차와 중고차 기준을 마련, ▲사용기준 미달 중고차 수출금지 등 역내 중고차 수출로 인한 제3국 대기오염·안전사고 위험 차단 방안 마련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에너지, 독일] 독일, '32년까지 수소 운송망 확대 구축 계획 발표

- 7.12일(현지시간) 독일 가스 그리드 운영협회(FNB*)는 11,200km 길이의 수소 운송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
 - * FNB gas : 독일 16개 주에 장거리 가스운송을 담당하는 가스망 운영사 단체
 - 이번 계획은 '20년에 구상한 6,000km 수소 그리드의 2배 길이에 달하며, 총 309개 프로젝트를 포함
 - 동 수소 운송망은 뒤셀도르프 등 서부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대부분 기존 가스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향후 독일 산업계에 필요한 수소를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현재 독일 산업계의 연간 수소 소비량은 55TWh이며, 철강생산 및 화학 공정에서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0년까지 소비량이 110TWh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운송망을 통해 네덜란드·노르웨이로부터의 수소 수입과 독일 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 운반이 가능할 전망이나, 기존 가스관 활용 방안이나 수소관 전용에 필요한 예산 해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
 - 독일 정부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보조금 지급 고려 예정 발표
 - 2주간의 의견수렴절차 이후 '23년 가을부터 구축작업 개시 예정이며, 독일 수소 전략은 7월 중순 개편 예정
-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에너지, 호주] 호주 “청정에너지 기술, 중국 따라잡겠다” 도약 예고

- 7.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통상부 장관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선두기술을 보유한 중국을 추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언급
 - 호주는 미국을 거대한 배터리 금속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이 발표한 기후 정책을 계기로, 거대한 광물 탐사 기회가 열렸다고 분석
 - 호주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투자를 유치하여 청정에너지 산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
 - 7.14일(현지시간) 현재 호주 핵심광물 산업 현황과 미래 전략이 담긴 '핵심광물전략 2023-2030' 보고서* 발간
 - * ▲고순도 알루미늄▲코발트▲갈륨▲흑연▲리튬▲망간▲니오븀▲텅스텐 등 26개를 핵심광물로 지정
 - 호주 정부는 '30년까지 핵심광물 목표 달성을 위해 6개의 집중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소개*
 - * ▲전략적 중대 프로젝트 개발, ▲투자 유치 및 국제 파트너십 구축, ▲원주민 참여 및 혜택 공유, ▲호주를 ESG 분야 세계적인 리더로 육성, ▲인프라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숙련된 인력 양성 등이 목표
 - 주요 외신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 호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해당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
- 출처: 블룸버그(23.7.17)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제재, 미국】 美 하원, 벤처기업들의 中 투자 조사... "투자자료 제출하라"

- 7.19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자국 벤처기업들*의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 조사 중
 - * GGV캐피탈, GSR벤처스, 월드인터내셔널, 퀴컴벤처스 등 캘리포니아 소재 벤처기업들
-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 관련 대중 투자 제한을 입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여짐
- 특위*가 보낸 서한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기업들의 대미 안보 위협 및 인권 침해 지적
 - * 특위(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올해 활동을 시작, 워싱턴이 대중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고 잠재적으로 금지하려는 노력 중 하나이며, 중국의 초강대국 목표를 지원하는 미국 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투자 부문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실시한 일련의 조사 중 첫 번째 이며, 다음 조사 대상은 세쿼이아 캐피탈*이 될 것이라고 발표
 - * 세쿼이아 캐피탈: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대형 투자회사
- 현재 미국 상원은 미국 투자자가 중국 등 적대국에 있는 특정 기업에 투자할 경우, 신고를 의무하는 내용의 '국가핵심능력방어법'을 논의 중이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미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이르면 8월 말경 발표할 예정

출처: 연합뉴스(23.7.20)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협정, 러시아】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연장 중단 선언

- 7.17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흑해 곡물협정과 관련해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며 협정 공식 종료를 선언
- 러시아는 '22.7월 유엔(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에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맺었고,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되어 만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고, 당초 인도주의적 목적이 충족되면 협정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힘
 - * 러시아는 러시아농업은행의 SWIFT 재연결, 농기계·비료 생산을 위한 부품·예비 부품 공급 재개, 러시아 수출 화물선 보험 문제 해결, 식품·비료 생산·운송 기업의 해외 자산·계좌 동결 해제, 협정의 원래 인도주의적 목적 복원 등을 요구
- 외신 등에 따르면, 흑해곡물협정 중단에 따른 즉각적인 타격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발생시키는 등 시장에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EU는 전세계 취약층을 위한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며, 'EU 연대 회랑*'을 통한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 EU 연대 회랑(EU Solidarity Lanes) : EU가 육로를 통해서 제3국으로 수출을 지원.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EU회원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출처: 한국일보(23.07.18), 뉴시스(23.07.2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中 전력난 재연 가능성과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 전망

올해 여름, 中 13개 지역의 최고 기온이 '18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력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제조기업의 일시적 조업 중단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中 전력난 현황과 전력난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자.

■ 中 전력 현황 및 전력난 재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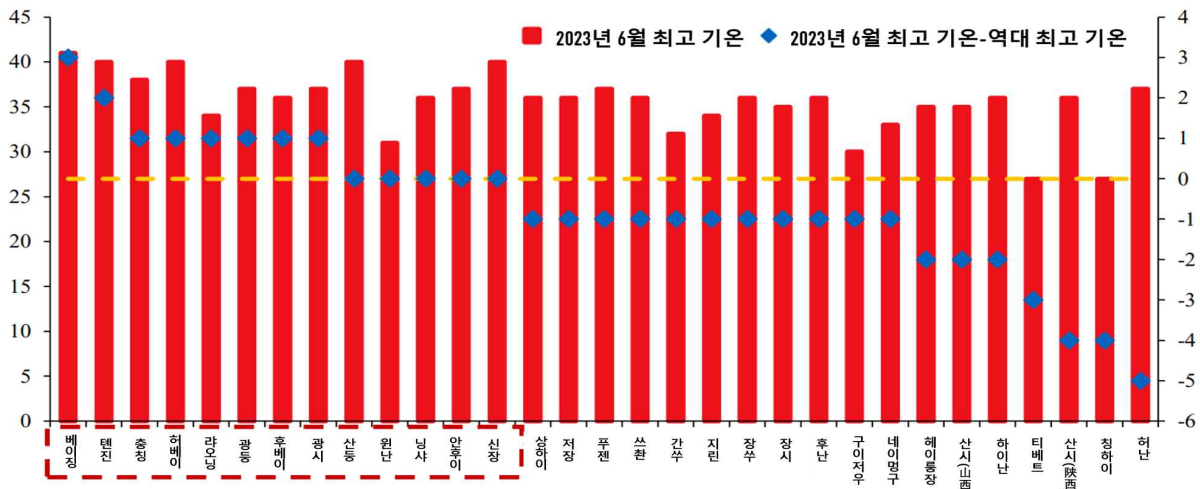
- 중국전력기업연합회(China Electricity Council)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전력 피크 2~3천만 kW의 전력 공급부족* 예상

* 전력 공급부족(电力缺口) : 특정 시점 모든 전기사용자의 작업 시간 조정, 전력 사용 제한 등에 의한 부하량을 의미하며, 특정 순간 전력 최대 부하의 부족 부분에 해당

●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6월 중국 31개 성(省)·시(市) 중 13개 지역*의 최고 기온이 '18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여름 전력공급 부족 가능성 제기

* 베이징, 텐진, 충칭, 허베이, 랴오닝, 광둥, 후베이, 광시, 산둥, 윈난, 닝샤, 안후이, 신장

〈중국 31개 성·시 성도(省會): 성정부 소재지의 '23.6월 최고 기온〉



자료 : wind, 華創證券

〈중국 주요 지역 전력 부족량 예상치〉

지역	동향	참고치
화북	· '23년 여름 전력 피크 시간대 최대 전락 부하 29~31억 kW · 전력 공급부족 250~1,000만 kW(예상치)	· '227~8월 전력 피크 시간대 최대 전력부하 24억 kW · '227~8월 화북 5성(省) 전기생산량 합계 1,350억 kWh/억
안후이	· '23년 여름 전력 공급부족 1,200만 kW(예상치)	· '22년 여름 전력 공급부족 1,080만 kW
쓰촨	· '23년 여름 전력 공급부족 750만 kW(예상치)	· '22년 여름 전력 공급부족 2,000만 kW
산둥	· '23년 여름 전력 공급부족 1,000만 kW(예상치)	· 여름철 전기생산량 500억 kWh/월

자료 : 中 현지 언론 종합

- 중국 경제발전·산업고도화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중국 전력 수급 불균형 지속 심화

● 중국은 '16년부터 전기 사용량 증가율이 매년 생산량을 상회하여 전력공급 부족* 국면 지속

* 中 전기 생산량 및 소비량은 통계기관 및 통계 기준이 상이하여 절대적 공급부족이 아닌 상대적 수급 불균형을 의미

〈중국 주요 지역 전력 부족량 예상치〉

연도	생산량(억 kWh)	전년비(%)	사용량(억 kWh)	전년비(%)
2018	67,914	6.8	68,449	8.5
2019	71,422	3.5	72,852	4.5
2020	74,170	2.7	75,110	3.1
2021	81,122	8.1	83,128	10.3
2022	83,886	2.2	86,372	3.6
2023.1~5.	34,216	3.9	35,325	5.2

자료 : 국가 통계국, wind

- '23년에는 中 경기회복 흐름과 폭염으로 인해 中 주요 전력망 운영사의 최대 전력 부하도 코로나19 기간 대비 1~1.5억 kWh 높은 수준

■ 中 전력난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 중국 진출 제조기업의 일시적 조업 중단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 有
 - 전력부족 사태 발생 시 中 지방정부는 주민 전력 사용 보장에 무게를 두고, 공업기업의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전력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업을 가장 먼저 전력 사용 제한 대상으로 지정

〈中 전력부족 발생으로 인한 제조기업 생산가동 중단 사례〉

시기	지역	내용
'22.8월	쓰촨	· 가뭄에 의한 전력난으로 성내(省内) 모든 공업기업의 생산시설 가동을 2주간 중단
'22.8월	충칭	· 역내 다수 기업의 산업용 전력공급 2주간 중단 조치 · 백화점 등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지하철 운행량 축소 등 민생시설 전력 사용 제한
'22.9월	윈난	· 가뭄에 의한 전력부족으로 황린 생산기업의 전력 사용 제한
'23.6월	네이멍구 바오토투(包頭)	· 中 대표 희토 도시이자 네이멍구 최대 공업 기지인 바오토투시는 6월 전력 사용 급증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기업의 전력 사용을 제한

자료 : 中 현지 언론 종합

- 일부 지역의 전력난으로 인한 대표 생산기지의 생산가동 중단은 中 전체 산업망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야기 가능
 - 중국의 경우 일부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로 '22년 수산화리튬은 중국 2대 생산기지 중 하나인 쓰촨성의 전력난에 의한 생산중단으로 전국 평균 가동률이 35%대로 급락한 바 있음
 - 중국 최대 황린 생산기지인 윈난성에서 '22.9월 가뭄에 의한 전력 부족으로 황린 감산령을 내리며 황산값이 급등한 바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여름철 전력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中 일부 지역의 전력공급 부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
 - 단, '21년과 같은 전국 다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조업·전기 사용 제한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 폭염 예상 지역의 주요 산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생산품의 공급 차질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필요
 - 업스트림 부문의 공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생산기지의 전력난에 의한 공급량 및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공급망 돋보기 :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의 지역적 편중 현황과 전망

세계 각국은 도래하는 청정에너지 경제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전기차, 태양광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정e 기술 제조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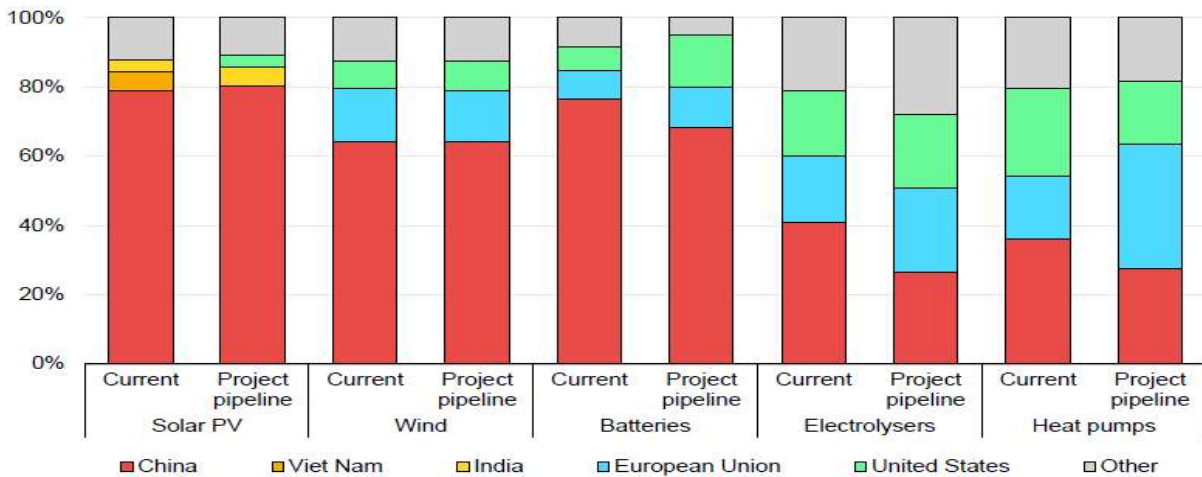
■ 개요

- 청정e 기술은 채광과 같은 다른 공급망 단계보다 리드타임*이 짧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프로젝트 발표에서 운영까지ダイナミック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제조 지역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 * 리드타임(lead time) : 기업이 특정 설비의 건설 의사를 밝히는 등의 프로젝트 발표 시점부터 상업가동 개시 시점까지의 기간
- 청정e 기술 제조 위치는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임. 따라서 청정e 기술 제조업의 전략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 주요 지역의 청정e 기술 제조의 최근 현황과 전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청정e 기술 생산능력 현황과 전망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인도가 전 세계 주요 청정e 기술의 대부분을 제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압도적인 위치에 있음. 향후에도 태양광 PV, 풍력, 배터리의 지역적 집중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지역적 집중도 현황과 전망〉



주 : 1) 본 분석에서 청정e 기술은 태양광 PV, 풍력, 배터리, 전해조, 히트펌프이며, PV는 광전지, 풍력은 육상풍력 나셀을 의미함. 전해조는 위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프로젝트만 분석에 포함하였고, 비중(점유율)은 생산능력(manufacturing capacity)을 토대로 산출
 2) '현재(Current)'는 '22년과 '23년 1분기의 설치용량(installed capacity)을 나타내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Project pipeline)'은 현재 설치된 용량과 '30년까지 발표된('23년 1분기 기준) 추가 생산능력의 합계를 의미

자료 : IEA(2023)

① 태양광 PV

- **(현황)** '22년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3개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이 중에서 80%를 점유하고 있음
- 중국의 일부 제조 공장은 국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 타이저우의 LONGi 공장은 '22년 EU 역내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 용량 증설분(38GW)의 절반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
- 베트남과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전체 생산능력의 5%와 3%를 차지하며, 이들 국가에서 가장 큰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7~8GW로 중국에 비해 훨씬 작음
- **(전망)** 발표된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30년도의 집중도는 현재와 매우 유사하게 3개국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중국은 80%로 거의 변동이 없고, 인도가 2위가 되고 미국이 베트남을 대체
- 태양광 PV에서의 높은 집중도는 태양광이 이미 성숙한 기술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며, 매년 증설되는 설치용량은 누적 설치용량에 비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성숙한 산업에서 집중도는 초기 산업보다 안정적

② 배터리

- **(현황)** 중국, EU, 미국은 '22년 세계 배터리 생산능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국가로는 중국이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각각 8%, 7%를 차지
- **(전망)** '30년 3개국의 집중도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95%)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소폭 감소하여 약 67%를 점유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각각 15%,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국가별 집중도(점유율)의 변화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급 프로젝트의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계획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는 미국 테슬라로, 이는 전 세계 배터리 생산능력의 약 13%에 해당
-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생산능력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이 보급된다면 세계 배터리 제조 환경과 지역 집중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③ 풍력, 전해조, 히트펌프

- **(풍력)** '22년 육상풍력 나셀 제조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EU(15%)와 미국(10%)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30년까지 이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이 '30년 세계 육상풍력 설비 생산능력의 55~65%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설비는 최대 70~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전해조)** 미국, 중국, EU가 '22년 전 세계 전해조 생산능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이 약 40%를 점유하고, EU와 미국은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기술에 비해 균등하게 분포
- 전해조 제조의 지역 집중도는 '30년까지 소폭 낮아져 중국과 EU가 세계 생산능력의 각각 25%를 점유하고, 미국이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조 지역 간의 집중도가 보다 균등하게 개선
- **(히트펌프)** '22년 중국, 미국 및 EU의 점유율이 각각 35%, 25%, 20%로 나타나며, 추가적인 용량 증설 발표가 없다면, 중국, EU 및 미국의 히트펌프 생산능력은 80%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30년 EU의 점유율은 약 35%로 중국(30% 미만)과 미국(20% 미만)보다 앞서지만, 히트펌프 관련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보다 유럽에서 주로 개발되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공급망 소식통 ① : 2023 한일 스마트팩토리 파트너링 사업 참가기업 모집

■ '2023 한일 스마트팩토리 파트너링 사업'이란?

'23.10.25일 일본 나고야에서 일본 최대 제조업 혁신 사업인 'Factory Innovation Week Nagoya 2023' 전시회가 열립니다. KOTRA는 한국기업 공동 홍보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 제품의 디지털 전시, 온라인 상담 주선, 현장 대리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스마트팩토리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 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 2023 한일 스마트팩토리 파트너링 사업 (Factory Innovation Week Nagoya 2023)
일시/장소	· '23.10.25(수)~10.27(금) / 포트메세 나고야
대상	· IoT/AI에 의한 원격 감시, 예지보전, 시각화솔루션, 디지털트윈, FA/로봇, 생산관리시스템, 그룹웨어, SCM 등 관련 분야 한국기업 20개 사
신청기한	· ~'23.8.31일 마감
참고사항	· 제조업 혁신 관련 대표 전시회로 전년도 총 554개사 출전, 3일간 3만여 명 방문 · 일본 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시회로 '23년은 전년 대비 규모 150% 확대 · 전시회 관련 상세내용은 홈페이지(클릭) 참고
향후일정	· (참가기업 안내) 9월 초 · (웹디렉토리 작성) 9월 · (디지털전시, 샘플 전시 관련 발송) 9월 (한국→일본) · (바이어 매칭 및 상담주선) 9~10월 · (상담진행) 10.25~27일

■ 신청 방법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클릭](#))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① KOTRA 무역투자24 접속 → ② '사업신청' 카테고리 내 사업명 검색 → ③ 한·일본 스마트팩토리 파트너링 사업 선택 → ④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신청 시 KOTRA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내 첨부파일 업로드를 통해 일문 혹은 영문 카탈로그(필수), 제품소개 동영상 파일 첨부
- (우대사항) 디지털 전시가 가능한 콘텐츠 보유 및 현지어 자료 대응 가능한 기업 우대
- (참가비용) 참가비용(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상담 주선 비용) 무료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02-3460-7634, ✉ keemh@kotra.or.kr)
- KOTRA 나고야무역관(☎ 81-52-3936, ✉ suninj@kotra.or.jp)

○ 공급망 소식통 ② : 부·울·경 제조기업X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 안내

부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제조기업 - 전문무역상사 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부산·울산·경남 소재 제조기업과 산업부 지정 전문무역상사간 대행수출 의뢰 및 수출 노하우에 관한 1:1 대면 상담을 주선할 예정입니다. 수출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무역상사와 함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들의 많은 참가신청 바랍니다.

■ 부·울·경 제조기업X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요

구분	내용
일시/장소	· '23.9.15(금) / 부산 아스티 호텔 22층 그랜드볼룸
대상	· 부산·울산·경남 소재 제조기업 중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 kita.net 해당 공지사항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설문조사 응답
기한	· 참가모집: ~ 8월 7일 (월) · 상담스케줄 확정 및 안내: 9월 1일 (금)
내용/규모	· (내용) 수출 노하우 1:1 대면 상담, 대행 수출 상담 등 · (규모) 00개 내외 선정 예정
기타	· 참가 신청 시 입력해주신 정보는 상담 매칭을 위해 전문무역상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상담 수요가 없는 경우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전문무역상사란?

-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제도로써, 수출역량이 우수한 수출대행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여,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의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 '23년 7월 현재 기준 500개사 전문무역상사 지정 (대기업 16개사, 중소기업 471개사 등)

* 전문무역상사의 수출 품목 국가 등 상세사항은 공식 홈페이지([클릭](#))참조

- 사례 1)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을 다변화

* 생활용품 제조업체 A社は 전문무역상사 C사와의 매칭상담을 통해 '22년 미국시장에 진출, 초동 수출액 2만불 규모 기록 및 '23년 6만불 규모 수출 예정

- 사례 2) 전문무역상사와 함께 전 세계에 제품 수출

*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B社は 자체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전문무역상사 D사를 통해 칠레, 알제리, 러시아, 이집트 등 신시장에 진출

■ 문의처

- 전문무역상사 매칭 수출상담회 운영 사무국 (☎ 02-6000-5072, ✉ jy.jung@kita.or.kr)

글로벌 경제지표(23. 7. 25. 화)

[환율]

	'21말	'22말	'23.6말	7/21	7/24	7/25	전일비	22말비
₩/U\$	1,186.30	1,188.80	1,317.70	1,283.40	1,279.90	1,275.40	△0.35	0.86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16.10	1,281.40	1,277.60	1,273.20	△0.34	0.62
₩/CNY	166.04	186.51	181.05	178.83	177.65	178.62	0.55	△1.55
₩/Y100	1,051.19	1,032.48	911.40	915.80	904.40	901.66	△0.30	△4.64
Y/U\$	103.34	115.14	144.58	140.14	141.52	141.45	△0.05	5.77
U\$/EUR	1.2279	1.1318	1.0857	1.1143	1.1128	1.1082	△0.41	4.38
CNY/U\$	6.5305	6.3681	7.2539	7.1680	7.1973	7.1449	△0.73	2.61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94.5 (₩/¥100) 955.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7.24(전일)	'23.7.25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2.52	84.25	1.7	12.4	5.5	
					2.1%	17.3%	7.0%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14.50	116.75	2.3	37.3	△0.6	
					2.0%	46.9%	△0.5%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430.00	8,597.00	167.0	1597.0	210.0
						2.0%	22.8%	2.5%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55.00	2,184.00	29.0	104.0	△176.5
						1.3%	5.0%	△7.5%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0,605.00	21,350.00	745.0	2250.0	△9075.0	
					3.6%	11.8%	△29.8%	

[반도체]

	'21	'22	'23.4월	'23.5월	'23.6월	7/20	7/21	7/24	7월(~2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63	1.58	1.51	1.49	1.49	1.48	1.50
(%, YoY)	29.9	△23.0	△54.8	△53.9	△55.2	△48.9	△48.9	△49.0	△52.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0	6.39	6.33	6.31	6.31	6.31	6.30
(%, YoY)	14.7	10.7	△20.9	△22.6	△20.9	△4.0	△3.9	△3.9	△7.7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6.30	7.7	7.14	7.21	전주비(7.14)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53.6	931.73	979.11	966.45	△1.3%	△12.7%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7.19	7.20	7.21	7.24	7.25	전일비(7.24)	'22년말비
BDI	2217	1515	1004	977	978	967	962	△0.5%	△36.5%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허 슬 비 김 소 민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전 해 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 주 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구독>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피드백>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주관기관



협력기관

